

간병인 고용 월 370만원...자녀소득 60% 넘게 쓴다

한은 '돌봄서비스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육아 도우미 비용은 164만원...외국인 도우미 직접 고용 등 추진해야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한 달에 370만원이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노인 가구 소득의 1.7배, 4050세대 소득의 60%를 웃도는 금액이다.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비용은 30대 가구 소득의 50%를 상회하는 월 264만원으로 간병과 육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넘어 =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1.7배에 이르고, 자녀 가구

(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것은,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구직 수)은 정체된 사이 노동 수요(구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 탓에 보건서비스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명, 2042년 75만~122만명 더 늘어나고 육아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약 20년 뒤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

의 30% 수준에 머문다는 예기다.

◇돌봄 비용 부담이 최대 GDP 3.6% 손실·저출산 원인으로 = 한은은 이처럼 돌봄 서비스 일자리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간병 도우미 비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불거질 문제로 우선 '요양원 양극화'를 꼽았다.

비용 부담에 요양원 서비스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시설은 결국 극소수만 이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더구나 간병비 부담과 시설요양 기피로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해당 가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제약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별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해당 경제 손실은 2022년 19조원에서 2042년 46조~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손실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였으며 20년 뒤에는 2.1~3.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증가는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 확대

이어서 젊은 여성의 퇴직과 경력 단절,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 "돌봄 수요,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 불가능" =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돌봄 종사자를 늘리는 것도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고용으로 긍정적 효과를 본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뒤 고용이 늘어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외국 국적 간병인 고용이 늘자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 활동 제약이 완화됐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첫 번째 방식으로는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이 제시됐다.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방식을 활용 중인 홍콩(2022년 기준 시간당 2797원)·싱가포르(1721원)·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 임금(1만1433원)보다 현저히 적다.

다만 사용자 조정이 제공하는 외국인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법 적용 주장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방식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체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체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오 팀장은 "이 방법은 외국 인력을 재가·시설 요양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관리·감독 우려도 적다"면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FC에 40억원 '통 큰' 후원

임직원 400명 개막전 응원전도

광주은행이 광주 시민구단인 광주FC에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광주FC가 창단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3위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 것을 기념하고, 2024 시즌도 선전하기를 기원하며, 후원금 30억원과 올해 광고 후원금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광주FC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2일 열린 광주FC 시즌 개막전에 광주은행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응원전을 벌였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개막전에서 2024 시즌 흥 개막을 알리는 시축과, 2024 광주FC 제 1호 유니폼을 구매하기도 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해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꾸준한 소통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상생하는 광주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고병일(가운데) 광주은행장이 지난 2일 열린 광주FC 리그 개막전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출산 2년 이내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법개정 추진... '부영 1억' 파격 혜택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8급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0만원 내면 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당초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아동매장 오픈 기념 이벤트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아동복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지난날 29일 본점 6층 아동매장에 유럽 아동브랜드 편집매장인 '매직에디션'을 오픈했다. 매직에디션은 스웨덴 브랜드인 '미나로디니', 스페인 브랜드인 '더 캠퍼멘토' 등 유럽 유명 아동 브랜드를 한데 모은 편집샵이다. 매직에디션은 오는 17일까지 오픈 기념으로 회원 가입시 5% 할인혜택 제공과 구매금액별 사은품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성전자 패밀리 허브 냉장고 'UL 솔루션즈' 최고 보안등급

삼성전자는 2024년형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 허브 플러스'가 사물인터넷(IoT) 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5일 밝혔다.

상반기 글로벌 출시를 앞둔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 허브 플러스는 글로벌 가전업계 최초로 'UL 솔루션즈(UL Solutions)' 주관으로 실시하는 IOT보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획득했다.

UL 솔루션즈 검증은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보안 성능을 확인받았다.

UL 솔루션즈의 IoT 보안 등급은 해킹 위험성과 보안 수준에 따라 브론즈부터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 5단계의 등급으로 나뉜다.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은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플래티넘 등급 대비 ▲항상 신뢰 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제공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취약점 테스트 ▲보안 취약점 조기 탐지를 위한 프

로그래밍 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로 요구된다.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는 냉장고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의 입고출고를 인식하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이 있어 식재료의 입고출고 순간을 자동으로 촬영해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준다. 또 '삼성 푸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보유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해준다.

냉장고 우측 도어에 32형 풀HD 터치스크린이 장착돼 있어 요리 중에도 유튜브나 삼성 TV 플러스 등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휴대 전화를 스크린 옆면에 가볍게 대면 휴대전화에서 시청하던 영상을 화면에 곧바로 띄워주는 '탭뷰' 기능도 제공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 광주본부 공로자 시상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29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회장 황금숙)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현호 본부장, 황금숙 회장을 비롯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2023년 사업결산보고와 2024년 주요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사업계획을 승

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이날 지난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서장농협 분회 이정희 회장이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 기여에 대한 유공으로 농업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본랑농협 분회가 농촌환경 개선에 대한 유공으로 농협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농촌여성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에 대한 유공으로 동곡농협·서광주농협

분회 및 삼도농협·광주농협·대촌농협 분회는 각각 농협중앙회광주본부장 및 농가주부모임광주시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황금숙 회장은 "정릉의 해를 맞이하여 농가주부모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값진 활동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지난해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과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병행하며 애써주신 농가주부모임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올해에도 농가주부모임 활동을 든든하게 후원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보 송정지점 보증공급 최우수지점 선정

광주신보보증재단(광주신보)은 광주신보 송정지점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호남권 '2023년 보증공급 최우수지점'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보증공급 우수지점 선정은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기여한 지역신보 우수지점에 대한 포상으로, 현장 사기 진작 및 보증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했다.

우수지점 선정 절차는 각 권역(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내 지역신보 지점별 보증 지원 실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광주신보보증재단 송정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주지점 등 4곳이 최우수 지점으로 선정됐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광주신보 직원들은 고물가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송정지점이 최우수지점으로 선정돼 기쁘다. 광주신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께 항상 열려있으니, 부담없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49.40(-24.87)
↓ 코스닥	866.37(-6.60)
↓ 금리(국고채 3년)	3.349(-0.011)
↑ 환율(USD)	1334.50(+3.20)